

아르헨티나의 음악가인 페르난도 오테로 씨는 수많은 음악 평론가들에 의하여 클래식음악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피아노의 거장으로 평가되고 있고, 그 자신 특유의 스타일을 살리고 개발한 작곡가이기도 하다.

그의 마지막 앨범인 “프리마돈나”에는 예전 그의 Warner Music 데뷔 앨범인 Pagina de Buenos Aires 에서 선 보였던 클래식 음악의 현대적 감각을 추가하려 했던 노력의 증거가 엿보인다.

프리마돈나는 Fernando Otero 의 어머니이자 그의 음악 Mentor 인 Elsa Marval 의 예술적 삶을 상세히 표현한 작품이다.

Elsa Marval 은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던 오페라 가수이자, 작곡가, 피아니스트 겸 배우였는데 2010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.

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Otero 씨는 여러 음악가들과 협주를 해왔는데, 그 중에는 Paquito D’Rivera, Kronos Quartet, , Eddie Gómez, 그리고 Quincy Jones 등 의 음악가 들을 손꼽을 수 있다.

프리마돈나에는 솔로 피아노 연주를 위한 구간이 있는데, 그곳에는 Otero 씨의 피아노 모든 음계를 화려하게 사용하여 표현하는, 노래를 부르는 듯한 멜로디 강조가 있고, 빠른 연주 구간에는 강력한 리듬의 박진감을 포함하였으며, 그 구간에는 총을 발사하는 것처럼 정확한 음계의 반복이 지속되지만, 갑자기 한 낮에 꿈을 꾸는듯한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뀌는 급작스러운 변화도 포함하였다.

프리마돈나는 새로운 형태의 작곡법을 담았을 뿐 아니라 기존의 음악들을 다시 해석하고 찬양했다는 의미 때문에 아주 특별한 앨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.